하나님 명령권 밖의 평안

(마태복음 8:23~27)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권 밖의 평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명령권 밖의 평안'
본래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23~27절의 풍랑 만난 사건의 중요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놀람과 제자들의 놀람이 서로 교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에 대해 놀라십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명령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구원받음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놀람이 사라지는 상태가 바로 구원받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제자들에게서 느끼셨던 놀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제자들이 느꼈던 놀람은 없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놀라시며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10절에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게는 믿음이 작다고 나무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바다에 익숙한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무서워할 정도의 풍랑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풍랑을 무서워했다고 놀라시며 믿음이 작다고 나무라시다니 예수님이야 말로 이상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토록 위협적인 풍랑 속에서 무서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놀랍게 여겨질 지경입니다. 이토록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믿음이라는 것일까요? 위협적인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평강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결코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 대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언제나 풍랑을 문제시합니다. 다른 설교를 들어보아도 결과적으로는 풍랑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이 잠잠해지도록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시 하는 것은 풍랑을 마주했을 때에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풍랑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할 믿음의 길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풍랑에 대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놀라실 것입니다. 그토록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믿음이 없느냐고 나무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잠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랑 이는 것을 보고 바다로 나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다 잠들어 있는 상황이야 말로 최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샘에서 발원한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흘러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작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로 보내지는 제자들의 마음의 양이 적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으나 마음은 예수님께로 전혀 흘러들어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마음은 배가 아닌 예수님을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어부들조차도 압도당하는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는 예수님 바깥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평강이 지배하는 예수님 안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보내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작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마음이 예수님 밖의 영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말할 수 없이 큰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었으나 믿음이 적었습니다. 마음을 조금도 예수님께 보내지 않고도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몸으로 배를 탔듯이 마음은 예수님을 탈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믿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셀 수 없이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머무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탄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께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크기란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올라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따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환자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처럼 세상과의 모든 관계에 대한 마음의 결별이 있어야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만남의 만족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서기관과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했던 제자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앞세움과 따름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만남과 따름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는 단계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만남과 따름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멀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뒤에서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만남과 따름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2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고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놀란 풍랑이 잠잠하게 된 사건은 예수님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닿자마자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마음이 머물던 곳이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임하는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바깥에 마음이 머무는 것이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영역인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정거리 바깥에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예수님의 바깥 영역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발생하는 예수님의 안쪽 영역입니다. 믿음이란 명령의 대상으로써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바깥 영역이 아니라 명령이 발생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권을 받아서 명령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시든 피조물로써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와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김새와 삶과 역사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권이 활성화되는 영역에 머물면서 잘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에 대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예수님의 바깥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명령이 발생하는 예수님 안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증조할아버지가 세 아들을 크게 야단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손자였던 저의 아버지가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애롭게 웃으시며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손주를 안고 달래시면서 동시에 아들들에게는 호통을 치시며 야단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품에 안긴 손주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어야 합니다. 굳이 야단맞는 아들들의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 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하나님에 명령의 의한 것이었습니다. 풍랑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권을 위임받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도달하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권 바깥인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권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권을 벗어나

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안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품안으로 파고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품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미치는 영역인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유지되는 예수님 안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교만한 말이 아니냐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어 머무르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교만입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이 미치는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명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는 소원이나 비전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권을 도둑질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소원, 계획, 바람, 꿈, 비전 등으로 나타납니다.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삶에 대해서 스스로 명령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창조주의 흉내를 내는 동안에는 결코 마음은 창조주 품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창조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올수록 창조주처럼 되겠다는 교만은 커집니다.
삶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풍랑이 일어날 때에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것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의 내용이 삶에 대해 스스로 명령권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미치는 영역인 세상에 주저앉게 되었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미치는 피조세계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조직을 교회라 부를 때에 엄청난 오해가 일어납니다. 예배당조직에 참여하여 교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조직은 그 자체로 교회가 아니기에 이것은 일종의 거짓말이고 사

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온 세상에 단 하나 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교인의 특성은 예수님을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모임으로써의 교회는 그 자체로 구원의 방주라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세상에 살고 있는 75억 인구가 탈 수 있는 유일한 방주이십니다. 마치 달은 하나뿐이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달을 바라볼 수 있듯이, 75억 명이 예수님 한 분께 마음을 보낼지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방주가 아니라 방주이신 예수님께 올라탄 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올라탈 대상은 예배당조직으로써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을 혼동하며 예배당조직을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라타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로 삼아 올라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여러분은 직장과 학교와 가정 등에서 교회와 세상의 접점이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은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라 부를 수 있고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교회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세상의 접점이자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권이 임하는 피조세계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품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의 품안으로 이끌고 올라가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오직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권이 임하고 있는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죽이고 배를 올라타듯이 예수님을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 평강의 삶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권을 도둑질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우리가 육체로 접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 바깥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풍랑 이는 바다인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일들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예수님을 올라타게 하시

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느끼셨던 깊은 잠의 평강을 일상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